

긴급조치 한차례도 없었다...홍수통제 실패가 섬진강 물난리 키워

“소극적 댐 방류로 수해” 환노위 위원들 국감에서 질타 홍수통제소 “기후에 따른 수치 변화 등 후속조치 마련”

환경부 소속 홍수통제소가 댐 사전 방류 지시 등 홍수통제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 관리자의 방류 승인 요청에 승인만 하는 소극 행위로 올여름 홍수 피해를 키웠다는 질타가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은 14일 환경부 소속 기관 국감에서 “영산강홍수통제소는 홍수 조절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섬진강 댐 사전 방류 기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하천법 제41조는 홍수 예방을 위해 필요시 긴급조치를 댐관리자에게 명할 수 있는데도 단 한 차례도 긴급조치를 명하지 않았다”

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법에 정한 명령권도 행사하지 않고 댐관리자의 승인 요청에 승인만 하니 홍수통제소가 아니라 댐 방류 승인소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사전 배포한 자료에서도 “홍수통제소는 댐방류 승인을 하면서 댐관리자들에게 ‘하류지역 농경지 및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문구를 내보냈다”며 “하지만 이는 공문 대부분에 반복적으로 등장만 할 뿐, 이 문구만으로 홍수통제소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한 것이 면책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종성(경기 광주) 의원은 “8월 7일부터 8일까지 섬진강에는 500년 빈도에 해당하는 340.8mm의 비가 내렸고 댐 유입 총량은 144% 수준으로 설계 홍수량을 초과했다”며 “긴급 방류 등 긴급조치 명령 권한을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속수무책은 아니지 않았느냐”며 “홍수통제소가 제대로 일을 해줬다면,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피해를 덜 입었을 수 있다”고 소극 대응을 비판했다.

홍수통제소는 하천법 제41조에 따라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그 수계에 대한 하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댐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환노위 위원들은 영산강홍수통제소가 한 국수자원공사의 방류 요청을 승인만 할 뿐 선제적인 방류 명령을 내리지 않아 홍수 통제에 실패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규호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6월 20일 홍수기 시작부터 섬진강 댐 수위를 11m 낮춰 유지했다”며 “기상청이 장마 막바지라고 예보한 7월 30일 즈음에는 적지 않은 비가 내리면서 전남·북에 폭염 특보가 내린 상황에서도 휴탕물이 흐를 정도로 예비 방류를 하며 제한 수위보다 3m 이상 낮췄다”고 해명했다.

김 소장은 “국감이 끝나면 본부와 협의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수치 변화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현대차그룹, 정의선 시대 개막

신임 회장 선임...“고객 중심 강조, 혁신 자율주행 개발”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사진) 수석 부회장이 14일 회장으로 선임됐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이날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정 신임 회장 선임 안건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각 사 이사회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현대차그룹은 설명했다. 정몽구 전 회장은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정 신임 회장은 취임식 대신 세계 그룹 임직원에게 영상 취임 메시지를 보내 고객을 필두로 인류·미래·나눔 등 그룹 혁신의 지향점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현대자동차그룹의 모든 활동은 고객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고객이 본연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며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류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새로운 이동경험을 실현시키겠다”고 표명했다.

특히 범현대그룹 창업자인 정주영 선대회장과 현대차그룹을 세계적으로 성장시킨 정몽구 명예회장의 업적과 경영철학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두 분의 숭고한 업적과 기업을 정진 시켜주신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임직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정 신임 회장은 1999년 현대차에 입사, 2002년 현대차 전무, 2003년 기아차 부사장, 2005년 기아차 사장, 2009년 현대차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2018년 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을 맡았다.

기아차 사장 당시 디자인경영을 통해 기아차를 흑자로 전환시키고, 현대차 부회장 재임 기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에 맞서 성장을 이끌었으며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 출범, 안착시킨 바 있다.

총괄 수석부회장 임기 2년여간 그룹의 미래 혁신 비전을 제시하고 핵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탄환의 흔적을 찾아라” 14일 오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본관에서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조사 위탁을 받은 한국전통문화대 학교기업 컨테크(Con-Tech) 팀이 고주파 투과기인 ‘테라헤르츠 분석기’를 이용해 본관 내부 벽면에 남아있을 탄환의 흔적을 조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전남 통합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 주목

민주당 광주시당 등 주최 토론회 경제·관광 등 공동체 형성 추진 장단점 살펴 지역발전 길 찾아야

광주·전남 통합이 지역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 광역경제권으로 성장 동력을 찾자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10일 이용섭 광주시장의 행정통합 제안에 김영록 전남지사가 14일 경제적 통합협의체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등이 주최한 ‘부산·울산·경남의 메가시티 추진전략과 광주전남에 던지는 시사점’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수도권과의 과도한 집중과 그에 따른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통합이나 연대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광역경제권을 의미하는 메가시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이날 손은일 경남도 정책수석보좌관은 발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부·울·경 메가시티를 자세히 설명했다. 손 보좌관에 따르면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는 공동화

된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행정 통합보다는 경제산업, 문화관광, 생활권 등의 공동체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 공동체를 위해 동남권 제조업 혁신기반 조성 연구개발(R&D) 혁신체제구축, 동남권 창업지원, 동남권 수소 메가블록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광역관광벨트, 2020부산월드엑스포 개최 등 문화관광 공동체를 구축하면서 통행 시간 30분대 생활권 형성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과 광역 재난관리체계, 먹거리공동체 등을 위한 생활공동체도 만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동남권 메가시티는

추진전략으로 사·도통합이 아닌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광역연합 설치 등의 행정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손은일 보좌관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동남권 메가시티를 처음 제안했지만, 부산과 울산, 경남 중 부산이 거점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서울은 수도권 중심, 부산은 동남권의 중심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토론의 좌장을 맡은 박광서 전남대 명예교수는 “이제 시작점에 선 광주·전남의 입장에서 다양한 논의를 보면서 장단점을 살펴 진정한 지역 발전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통합이든 광역경제권이든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

靑, 대통령 편지 친필 논란에 “글씨보다 내용이 중요”

피격 공무원 아들에 보낸 답장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아들이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을 친필로 쓰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4일 “편지는 내용이 아니라 글씨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답장에서 ‘아픈 마음으로 편지를 받았다. 가슴이 저리다’고 하면서 진심으로 아들을 위로했다”며 “이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한 대통령은 고등학생에게 마음을 담아 답장한 것”이라

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서한은 대통령이 육필로 먼저 쓴 다음 이를 비서진이 받아 타이핑한 뒤 전자 서명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뿐만 아니라 외국 정상에게 발신하는 친서도 마찬가지”라며 “타이핑 여부가 왜 논란의 소재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의 형 이래진(55)씨는 전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답장이 친필이 아니라 컴퓨터로 쓴 편지고, 기계로 한 서명이 찍혀 있다”며 문 대통령이 보낸 편지의 내용은 물론 형식에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어르신 돌봄은행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도 저축이 된다”

어르신 돌봄은행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만 65세 이후에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봉사자 모집

- 돌봄봉사자 자격 : 만13세이상, 2인 1조 활동 권고, 4시간 교육 필수(교육시간도 포인트 혜택)
- 돌봄봉사자 혜택
 -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용(적립 및 사용)
 - 돌봄활동 시간 VMS 연계 적립
 - 돌봄포인트 적립 시 의무기부 20%
 - 적립한 포인트는 가족과 제3자에게 기부 가능
- 돌봄활동 범위
 - 인지기능·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안전관리 등
 - 돌봄봉사자 기초관리교육 : 수시 모집

돌봄대상자는?

- 어르신 돌봄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이상의 어르신 중 전문가 돌봄활동 제공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이거나, 만 40세 이후 본인이 적립한 돌봄포인트와 기부받은 포인트의 합계가 100포인트 이상인 어르신
- 돌봄서비스 범위 : 인지기능·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

CCC 동구노인종합복지관 www.noin.or.kr
☎ 062-232-4953

1688-3579
(전국 50개 시군구소재)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이행기(380816-XXXXXX)
- 최후주소: 전남 장흥군 관산읍 송촌지정길 149-60 (송촌리)

피상속인 망 이행기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0년산56호로 신청하여 2020년 10월 8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에 채권신고를 하지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10월 15일

- 상속인: 이의환(590914-XXXXXX) 이천시 이십대천로 1427, 102동 1004호 (중포동, 이천중포대우1차아파트)
- 신고기간: 2020. 10. 15. ~ 2020. 12. 24.
- 채권신고처: 상속인 이의환의 주소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나브**

광고문의 (062) 227-9600 | 신문구독 (062) 220-0551 | 예향구독 (062) 220-0550